

'직지'의 창조적 가치를 알리다...9월 청주서 '직지코리아'

기사입력 2016/07/15 15:02 송고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의 가치를 세계무대에 알리기 위한 국제행사가 9월 충북 청주에서 열린다.

직지코리아조직위원회(위원장 이승훈 청주시장)는 9월 1~8일 충북 청주 예술의전당과 고인쇄박물관에서 '직지코리아' 행사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2001년 직지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자 청주시는 직지의 창조적 가치를 계승하고자 2003년부터 '청주직지축제'를 총 8차례 개최했다. 또 2005년 유네스코 직지상을 제정해 세계기록유산 분야에서 복원·보전에 이바지한 기관을 선정해 상과 상금을 수여했다.

이번에 열리는 '직지코리아'는 '청주직지축제'의 이름을 바꾸고 예산을 확대해 지역 행사를 넘어 국제적인 행사로 끌어올린 것이다. 청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타당성 심사에 응모해 필요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처음으로 국제행사 규모로 열리는 직지코리아는 '직지, 금빛 씨앗'이라는 주제하에 국내외 유명 작가들을 대거 초청한다.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인 론 아라드는 조형물 '직지 파빌리온'을 선보인다. 전시장 밖에서 관객들을 처음 맞이하는 이 '직지 파빌리온'은 직지의 제본 형태인 선장본에 영감을 받은 것으로, 고서를 엮어놓은 형태다. 안에는 수십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영국왕립예술학교 인테리어 디자인 학과장을 역임한 에이브 로저스는 공간 연출을 맡았다.

안상수, 이이남, 배병우, 최정화 등 국내 유명 작가들도 직지를 소재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타이포그래피인 안상수 작가는 예술의전당 건물 전면에 28m 길이의 대형 파사드를 설치한다. '알파에서 히읏까지'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생각의 전환으로 패러다임을 바꾼 '창조가'들을 조망한다. 시작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α'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한글의 'ㅎ'이 된다고 조직위 측은 설명했다.

바깥 공간에선 알파벳을 그린 뒤 그 위에 다시 그림을 겹쳐 그리는 작업을 하는 필 뚝슨이 멀티미디어 작가이자 패션디자이너인 브리짓 스테푸티스와 함께 제작한 스테인드글라스 작품 '구텐베르크 갤럭시' 등도 설치된다.

전시장 안에선 사진작가 배병우의 팔만대장경과 해인사의 풍광 사진을 만나볼 수 있다. 또 영화를 미디어작품으로 재해석하는 것

으로 유명한 이이남은 직지의 한 구절에 움직이는 효과를 넣은 미디어 작품을 선보인다.

직지를 매개로 인쇄술 발달사를 볼 수 있는 교육적인 전시도 전시장 한쪽에서 열린다. 이곳에선 금속활자본 직지가 발간되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정보 공유가 이뤄졌는지를 보여주고 구텐베르크 인쇄기 복원본, 당대 종교행사에 사용한 구텐베르크 반사경, 구텐베르크 면죄부 등이 전시된다.

직지는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된 금속 활자본으로, 현재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직지의 '하권'만 남아있다. 직지는 서양의 인쇄문명을 발달시킨 구텐베르크 42행 성서보다 78년이나 앞선 것으로 증명됐으며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한편 조직위는 직지 코리아 개막일인 1일 유네스코 직지상 수상자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2년마다 직지코리아 행사를 열고 국내 행사가 없는 해에는 해외 순회 전시를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번 전시 기획을 맡은 김승민 수석 큐레이터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라고 하면 다들 구텐베르크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보다 78년 앞서 만들어진 직지가 있다. 이번 전시가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장료는 성인 5천원·청소년 4천원.



luc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7/15 15:02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